

#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저임금근로의 상태의존성<sup>1)</sup>

최 효 미<sup>2)</sup>

본고는 기혼 여성의 저임금근로의 상태의존성 및 노동시장참여행태의 동태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7차(2004년)~15차년도(2012년)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7차년도 당시 20~45세였던 기혼 여성들을 균형패널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사건계열그래프 및 개인의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한 동태적 패널 다항 로짓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관측 시작시점인 7차년도에 저임금근로자였던 기혼 여성의 상당수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저임금근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비저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다수의 경우 비저임금근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저임금근로자의 경우 저임금근로로의 이동보다는 미취업으로의 이동이 많았으며, 비저임금근로에서 미취업으로 이동한 기혼 여성의 경우 미취업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 여성의 경우 미취업상태가 지속되거나 비저임금근로 상태가 지속되는 양분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반면, 고졸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저임금근로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다양한 고용형태간 이동이 눈에 띈다.

한편, 동태적 패널 다항 로짓 모형의 분석 결과, 전기의 고용형태가 전기와 동일한 현재의 고용형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태의존성이 발견되었다. 다만, 전기에 저임금근로 상태에 있던 기혼 여성이 현재 비저임금근로로 이동했을 확률 또한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임금근로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이탈 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한편, 비저임금근로는 저임금근로에 비해 보다 큰 취업 유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력은 높을수록 미취업 대비 비저임금근로에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인 반면, 저임금근로의 경우에는 유의한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4년제대졸이상 학력소지자의 경우 저임금근로를 하기보다는 미취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고학력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결과이다.

## 1. 서론

보육에 따른 부담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따른 기회비용을 크게 만들어, 노동시장참여를 제약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또한, 보육 부담을 지닌 기혼 여성은 노동시장참여 자체가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시장에 직면하고 있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 본고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와 상태의존성」(2014, 노동정책연구)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연구로,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2)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노동패널팀장

저임금 일자리는 근로시간의 융통성이 크고, 진입 장벽이 낮아 경력단절 이후 재진입이 쉽기 때문에,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이탈을 방지하고, 노동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이므로, 실직에 따른 기회비용이 낮고 취업에 따른 소득증가가 유보임금을 초과하지 못하여 실망실업 확률을 높이는 기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고, 보육에 대한 기회비용이 큰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노동시장에 저임금근로 일자리의 수가 많을지라도 노동시장참여를 유인하기 쉽지 않다.

문제는 1990년대 이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출생한 기혼 여성들의 상당수가 고학력 여성이라는 점이다. 현재 이들은 어린 자녀의 보육을 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는데, 자녀가 성장하여 이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 노동 수요와 공급사이의 미스매치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위험이 높다.

한편,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자녀의 보육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에 걸친 동태적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은 인적 자본, 가구 특성과 같은 관측 가능한 특징뿐 아니라, 가구내 역할 분담 및 보육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미관측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생성 문제로 인한 추정치의 왜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보육부담을 지닌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의 장기에 걸친 동태적 변화와 고용형태의 상태의존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분석 방법으로 동태적 패널 다항 로짓(dynamic panel multinomial logit)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한편, 이항 모형을 적용한 기존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본고는 고용형태를 미취업/ 저임금근로/ 비저임금근로로 3개의 범주로 구분한 다항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대안적 노동형태로 미취업을 함께 고려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혼 여성들은 노동시장참여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지닌 2차노동시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다시 노동시장참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취업-미취업 혹은 저임금근로-비저임금근로 등과 같이 이항으로만 구분되는 모형보다는 이들을 동시에 고려한 다항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때, 일반적인 다항 로짓 모형이 아닌 동태적 패널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특성 및 고용형태 사이의 상관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하여 추정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한국노동패널 7차년도(2004년)~15차년도(2012)년까지 9개년도 자료를 균형패널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먼저 II절에서는 저임금근로의 상태의존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III절에서는 분석 방법인 동태적 패널 임의효과 다항 로짓모형(dynamic panel multinomial logit model with random effect)에 간략히 설명한 후, 분석 자료의 특징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지는 IV절에서는 사건계열분석을 통한 고용형태의 동태적 변화와 동태적 패널 다항 로짓 분석을 통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V절에서는 본 장의 논의를 요약 정리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본다.

## II. 선행연구

과거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현재의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은 실업의 지속성 혹은 낙인효과(stigma 또는 scarring effect)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다. 이후 이러한 상태의존에 관한 연구는 노동시장참여 여부 뿐 아니라 열악한 노동시장지위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Cappellari & Jenkins(2004), Uhlenborff(2006), 석상훈(2008), Mosthaf et al(2009) 등의 최근의 연구는 저임금 일자리의 함정 효과에 보다 초점둔 연구 결과들이다. 이들은 임금근로 일자리를 저임금근로와 고임금근로(비저임금근로)로 구분하여, 고임금과 실업사이의 이동 가능성보다 저임금과 실업 사이의 쌍방 이동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임금 일자리는 반복실업을 발생케 하는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석상훈(2008)은 동태적 프로빗 모형을 활용하여, 저임금 근로의 경험은 현재의 저임금 일자리 선택 과정에 있어 상태의존성이 존재하며, 과거의 실업 경험도 현재의 저임금 근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는 특히 여성 실업자가 남성에 비해 저임금 일자리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Cappellari & Jenkins(2004)는 다변량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남성 저임금근로자는 고임금근로자에 비해 실업에 빠지기 쉬우며, 실업상태에 놓인 남성이 구직시 고임금근로자보다는 저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같은 함정효과가 학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Uhlenborff(2006)는 동태적 다항 로짓모형(dynamic multinomial logit model)을 적용하여, 본고와 같이 미취업-저임금근로-고임금근로 사이의 상태의존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취업 뿐 아니라 저임금근로의 경우에도 강한 상태의존성이 존재했으며, 저임금근로와 미취업 사이의 양방향 이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임금근로 경험은 미취업 경험에 비해서는 미래의 취업확률을 증가시키고, 고임금근로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다 최근의 연구인 Mosthaf et al(2009)은 좀 더 세분된 취업형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는 종속변수인 취업형태를 고임금근로, 저임금근로, 실업, 비경제활동으로 4개의 범주로 나누었으며, 저임금근로는 다시 시간제 근로와 전일제 근로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저임금 일자리의 상태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간제로 일하는 저임금 여성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실업 혹은 비경활상태의 여성에 비해 저임금근로 여성이 고임금 일자리를 얻게 될 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그는 기혼 여성들이 실업상태에 머물거나 좋은 일자리를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실업을 벗어나기 위한 징검다리로 저임금 일자리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처럼 보육부담을 안고 있는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비해 취업 결정시 대안적 일자

리의 특징이 보다 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robnič et al(1999)은 보육부담을 지닌 여성의 경우 재택근로, 보육시설 근접성, 근로시간 단축, 업무수행의 신축성 등이 노동시장 참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기혼 여성들은 시간제 근로 혹은 임시직 일자리를 선택하게 됨을 강조한다. Yu(2002), Okamura & Islam(2009), Ahn(2010) 등도 보육 부담이 큰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오히려 시간제근로 혹은 임시직과 같은 저임금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한 일자리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다.

### III. 분석 방법 및 분석자료

#### 1. 분석 방법

본고가 고용형태의 상태의존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분석 방법은 동태적 패널 임의효과(dynamic panel random effect) 다항 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이다<sup>3)</sup>.

개인  $i$ 의  $t$ 기의 고용형태  $j$  (미취업, 저임금근로, 비저임금근로)에 대한 다항 모형은 (식 1)과 같다.

$$(식 1) \quad y_{ijt}^* = x_{it} \beta_j + y_{it-1} \gamma_j + \alpha_{ij} + \epsilon_{ijt}$$

이때,  $i = 1, \dots, N$  이고,  $j = 1, \dots, 3$  이고,  $t = 1, \dots, T$  이며,  $x$ 는 강의생성을 지닌 관측된 특성,  $y$ 는  $t-1$ 의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상호 배타적인 더미변수 벡터로 상태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이다.  $\epsilon_{ijt}$ 는 강의생성을 지닌 오류항이고,  $\alpha_{ij}$ 는 시간에 대해 변하지 않는(time-invariant) 개인 특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alpha_{ij}$ 는 진짜 상태의존(true state dependence)  $\gamma_j$ 만을 추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제 변수이다. 일반적으로는 미관측 개인 특성  $\alpha$ 와 관측된 특성  $x$  사이는 상호 독립적 이라고 가정하는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그럴 경우 추정치  $\beta$ 에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들면, 기혼 여성 노동시장 참여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미관측 특성으로는 보육에 대한 남녀의 역할 차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가 분석에 사용한 동태적 패널 모형은 이러한 미관측 개인 특성  $\alpha_{ij}$ 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들의 평균값과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이러한 제약을 완화한다. 즉,  $\alpha_{ij}$ 는 (식 2)  $\alpha_{ij} = \bar{x}_i \lambda_j + \eta_{ij}$ 와 같이 정의된다. 이 모형은  $\eta_{ij}$ 는 모든  $i, t, j$ 에 대해서  $x_{it}$  및  $\epsilon_{ijt}$ 와 독립이라고 가정한 모형으로,

3) 분석 모형에 관한 설명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와 상태의존성」(2014, 노동정책연구)에서 재인용하였다.

(식 1)에 (식 2)를 넣으면,

$$(식 3) \quad y_{ijt}^* = x_{it} \beta_j + y_{it-1} \gamma_j + \bar{x}_i \lambda_j + \eta_{ij} + \epsilon_{ijt} \quad \text{가 도출된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초기 조건의 문제(initial conditions problem)가 발생하게 되는데, 초기 조건의 문제란  $\eta_{ij}$ 와 초기 값  $y_{i1}$  사이에 상관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노동시장 최초 진입시 고용형태 선택에도 개인의 미관측된 특성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초기 고용형태는 현재의 고용형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주어야만 제대로 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관측 개인 특성을 나타내는  $\alpha_{ij}$ 의 오류항인  $\eta_{ij}$ 와 초기 값  $y_{i1}$  사이에 상관이 존재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모형을 수정하여야 한다.

본고는 Wooldridge(2005)가 제안한 방식으로, 초기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Wooldridge(2005)에 따르면,  $\alpha_{ij}$ 는 (식 5)  $\alpha_{ij} = \bar{x}_i \lambda_j + y_{i1} \nu_j + \eta_{ij}$  와 같이 정의되며, 이를 (식 1)에 반영하면,

$$(식 6) \quad y_{ijt}^* = x_{it} \beta_j + y_{it-1} \gamma_j + y_{i1} \nu_j + \bar{x}_i \lambda_j + \eta_{ij} + \epsilon_{ijt} \quad \text{가 도출된다.}$$

여기서, 개인 특성을 모두 통제된 후에도 남게 되는 오류항  $\epsilon_{ijt}$ 가 Type I 극단값 분포(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동태적 패널 임의효과 다항 로짓 모형이 된다.

최종적인 형태의 우도함수는 (식 7)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되며,

(식 7)

$$L_i = \int_{-\infty}^{\infty} \prod_{t=2}^T \prod_{j=2}^3 \left\{ \frac{\exp(x \beta_j + y_{-1} \gamma_j + y_{i1} \nu_j + \bar{x}_i \lambda_j + \eta_{ij})}{1 + \sum_{k=2}^3 \exp(x \beta_k + y_{-1} \gamma_k + y_{i1} \nu_k + \bar{x}_i \lambda_k + \eta_{ik})} \right\}^{d_{ijt}} f(\eta) d(\eta)$$

이때, 미관측 이질성  $\eta_i = (\eta_{i2}, \eta_{i3}, \eta_{i4})'$ 가 제약이 없는 분산-공분산 구조(unrestricted variance-covariance structure)를 가진 다변량 정규분포(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수치 적분을 통해 우도함수를 추정하였다.

이같은 동태적 패널 임의효과 다항 로짓은 여러 개의 고용형태 사이의 차이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으며, 관측된 특성 뿐 아니라 개인의 미관측된 특성까지 통제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고용형태로 인한 초기조건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엄밀한 의미의 상태의존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그러나, 이러한 동태적 패널 다항 로짓 모형을 활용한 연구는 추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 2. 분석 자료 및 변수 설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7차(2004년)~15차(2012년) 총 9개년 자료이며, 7차년도 응답자를 기준으로 균형패널로 구성하였다. 이 외에 내생성 문제 해결을 위해 포함된 초기 고용형태는 6차년도 이전의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sup>4)</sup>.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인 고용형태는 미취업, 저임금근로, 비저임금근로로 3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먼저, 미취업은 실업과 비경제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근로시간이 주당 18시간미만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취업↔비경제활동 사이의 양방향 이동이 대부분이고,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서 실업 상태의 개인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모호할 뿐 아니라 실업 상태에 머물러 있는 관측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자는 크게 저임금근로자와 비저임금근로자로 구분하였는데, 이들을 구분짓는 특징은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이다. 이때 저임금의 기준점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식인 OECD식 정의에 따라,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의 중위임금(median wage)의 3분의 2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저임금근로로, 그 이상인 경우에는 비저임금근로로 정의한다<sup>5)</sup>.

본 분석에 사용된 저임금근로 기준선과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표 1>과 같으며, 이 수치는 노동패널 표본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다. 7차년도 기준 저임금근로 기준임금은 시간당 4,360원이었으며, 임금수준 상승에 따라 기준임금도 상승하여 15차년도에는 시간당 6,822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 저임금근로로 구분된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25%~30%가량이었는데,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20%미만의 낮은 비중을 보인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40%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에 다수 취업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표 1> 저임금 기준선 및 저임금 근로자 비중

(단위 : 원, 명, %)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저임금 기준선		4,360	4,651	4,961	5,168	5,581	5,814	6,156	6,460	6,822
저임금 근로자 비중	전체	28.4	26.6	27.5	27.2	27.4	30.2	28.9	27.9	25.6
	남성	16.8	14.8	16.8	15.3	15.2	17.6	16.3	15.2	13.4
	여성	45.9	44.9	44.4	45.9	46.6	49.7	47.8	46.5	43.2

주 1 :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성별 비중은 성별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을 의미함.

- 4) 한국노동패널 1차~4차년도 자료를 분석기간에서 제외한 이유는 첫째, 초기 노동패널 자료의 경우 분석 변수의 정의가 다소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실시된 1차년도의 조사시기가 1998년으로, 외환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6차년도 자료에는 보육시설 이용 변수가 조사되지 않았다.
- 5) 저임금근로의 기준설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윤진호 · 이시균(2009)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본고의 분석 대상은 한국노동패널 7차년도(2004년)조사 기준 20~45세 기혼 여성으로, 7차년도 이후 15차년도(2012년)까지 총 9개년간 모두 응답한 개인이다. 연령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는 이유는 보육부담과의 연관성 속에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7차년도 당시 45세를 초과하는 기혼 여성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15차년도의 연령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는 매년 1,248명이며, 총 11,232개이다. 연령으로 분석 대상을 제한하고, 균형패널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응답이 누락된 개인이 분석에서 제외됨에 따라 여성 임금 근로자 대비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여성 전체 표본일 때에 비해 약간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 IV. 분석 결과

### 1. 기초 통계량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초통계량은 <표 2>와 같다. 본고의 분석에 포함한 변수는 연령과 연령의 제곱, 학력 더미, 가구주여부, 가구소득(본인소득 제외), 영유아자녀유무, 보육조력자유무, 보육시설 이용자 더미변수, 그리고 현재와 전기의 고용형태 및 초기 고용형태, 변수의 평균값 등이다.

학력은 전반적으로 고졸이하의 비중이 70.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력도 조금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혼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8.3%에 그쳐,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평균가구소득은 254만8천원이었다.

보육관련 변수는 영아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비중이 11.9%, 유아자녀가 있는 경우가 18.3%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자료가 2004년~2012년까지 9개년에 걸친 균형패널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영유아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영아자녀가 있는 경우와 유아자녀가 있는 경우는 7차년도에 각각 23.7%와 21.3%였으나, 15차년도에는 각각 3.7%와 7.6%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자녀의 성장에 따른 이러한 변화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행태의 변화를 잘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친인척 보육조력자가 있는 경우는 8.2%이었다.

본고가 특히 관심을 갖는 변수는 종속변수인 현재( $t$ 기)의 고용형태와 전기( $t-1$ )의 고용형태이다. 현재의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미취업자의 비중이 43.1%로 가장 높다.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31.2%, 비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5.8%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의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으나, 미취업자 비중이 약간 높아 44.9%였으며, 저임금근로자 30.3%, 비저임금근로자가 2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차수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미취업자의 비중이 7차년도에는 현재 고용형태와 전기의 고용형태가 각각 50.8%와 52.1%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다 점차 낮아져 15차년도에는 각각 35.9%와 36.36%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 자녀의 성장에 따라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2> 기초통계량

		전체		7차년도		15차년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현재 고용 형태	미취업자	4,835	43.1	634	50.8	448	35.9
	저임금근로자	3,501	31.2	352	28.2	407	32.6
	비저임금근로자	2,896	25.8	262	21.0	393	31.5
전기 고용 형태	미취업자	5,037	44.9	650	52.1	453	36.3
	저임금근로자	3,400	30.3	306	24.5	428	34.3
	비저임금근로자	2,795	24.9	292	23.4	367	29.4
초기 고용 형태	미취업자	5,850	52.1	650	52.1	650	52.1
	저임금근로자	2,754	24.5	306	24.5	306	24.5
	비저임금근로자	2,628	23.4	292	23.4	292	23.4
평균연령		40.7		36.7		44.7	
학력	고졸이하	7,876	70.1	892	71.5	863	69.2
	전문대졸이하	1,695	15.1	183	14.7	191	15.3
	4년제대졸이상	1,657	14.8	172	13.8	194	15.5
평균 교육년수		12.2		12.1		12.3	
가구주 여부	가구주	929	8.3	87	7.0	125	10.0
	비가구주	10,303	91.7	1,161	93.0	1,123	90.0
월평균가구소득(만원)1)		254.8		202.1		316.2	
영아자녀있음		1,341	11.9	296	23.7	46	3.7
유아자녀있음		2,050	18.3	266	21.3	95	7.6
친인척보육조력자 동거		921	8.2	117	9.4	89	7.1
보육시설이용여부		1,909	17.0	221	17.7	107	8.6
관측치(N)		11,232	100.0	1,248	100.0	1,248	100.0

주 1 : 월평균 가구소득은 기혼 여성 본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월평균 총가구소득임.

한편, 고용형태별로는 미취업자와 비저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이 다소 낮은 반면, 저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고용형태에 따라 학력수준의 현격한 차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저임금근로 기혼여성의 평균교육년수는 11.1년으로 고졸이하 학력자의 비중이 86.8%로 압도적으로 높는데 반해, 비저임금근로 기혼여성의 평균교육년수는 13.1년으로 4년제대학 졸업이상 학력소지자의 비중이 28.1%에 달해, 임금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개의 집단이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반증하였다. 미취업자와 비임금근로자는 이 두 집단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기혼여성이 가구주인 비중은 취업자의 경우 동일하게 11.1%인데 반해, 미취업자의 경우 4.5%로 낮았다. 저임금근로자와 비저임금근로자의 가구소득은 각각 222만5천원과 222만3천원으로 거의 같았으며, 미취업자의 평균가구소득은 297만7천원으로 취업여성의 가구소득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관련 변수의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영아자녀가 있는 경우가 19.4%, 영아자녀가 있는 경우가 26.0%로 매우 높은 반면, 취업자의 경우에는 영유아자녀가 있는 비중이 낮았으며, 특히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영아자녀가 있는 경우 3.1%에 그쳤다.



영유아자녀유무는 비저임금근로자보다 저임금근로자에게 보다 큰 영향을 미침을 짐작할 수 있다. 친인척이 자녀 보육을 도와주는 경우는 비저임금근로자 근로자인 경우 10%로 가장 높았으며,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이용여부를 살펴보면, 미취업자의 경우 오히려 보육시설 이용여부 비중도 높아져 23.5%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표 3> 고용형태별 기초통계량

		미취업자		저임금근로자		비저임금근로자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평균연령		39.1		42.7		40.8	
학력	고졸이하	3,313	68.5	3,039	86.8	1,524	52.6
	전문대졸이하	816	16.9	321	9.2	558	19.3
	4년제대졸이상	702	14.5	141	4.0	814	28.1
평균 교육년수		12.4		11.1		13.1	
가구주	가구주	217	4.5	390	11.1	322	11.1
여부	비가구주	4,618	95.5	3,111	88.9	2,574	88.9
월평균가구소득(만원)1)		297.7		222.5		222.3	
영아자녀있음		939	19.4	108	3.1	294	10.2
유아자녀있음		1,258	26.0	300	8.6	492	17.0
친인척보육조력자		310	6.4	321	9.2	290	10.0
보육시설이용여부		1,137	23.5	275	7.9	497	17.2
관측치(N)		4,835	100.0	3,501	100.0	2,896	17.2

주 1 : 월평균 가구소득은 기혼 여성 본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월평균 총가구소득임.

## 2. 고용형태의 동태적 변화

이 절에서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행태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본다. 장기에 걸친 고용형태의 변화를 보다 가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건 계열 그래프(event sequence graph)를 활용하였다. 사건 계열 그래프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사건들을 각 시점에서의 상태로 구분하지 않고 연쇄된 사건 계열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여 그린 그래프로, 한 시점에서의 상태가 아닌 장기에 걸친 일련의 사건 연쇄들 간에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Macindoe and Abbott, 2004; 장지연·이혜정, 2008; 반정호, 2010).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관측시작시점인 7차년도(2004년)에 미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저임금근로자 > 비저임금근로자 순이었다. 최종 관측 시점인 15차년도(2012년)에는 미취업자의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저임금근로자는 7차년도 당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으나, 15차년도에는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차년도 당시 비저임금근로자는 393명으로, 7차년도 당시 262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6)</sup>. 이때 표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1차년도 미취업자가 15차년도에 비저임금근로 상태에 있는 경우가 134명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7

6) 사건계열 그래프를 통해서만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으므로, 고용형태별 구체적인 수치는 <표 2>를 참조하면 된다.

차년도 당시 저임금근로자가 15차년도에 비저임금으로 이동한 경우는 87명, 7차년도와 15차년도 모두 비저임금근로자였던 경우는 1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기혼여성의 고용형태 변화 : 사건 계열 그래프



주1 : 범례는 1.미취업(빨간색), 2.저임금근로(노란색), 3.비저임금근로(회색)을 의미함.

주2 : X축은 7차년도(2004년)를 시작으로 15차년도(2012년)까지의 응답차수, Y축은 빈도로 기혼여성 각각을 의미함. 즉, 가로 줄 하나가 한 개인의 고용형태 변화를 나타냄.

주3 : 각 차수별 관측치는 총 1,248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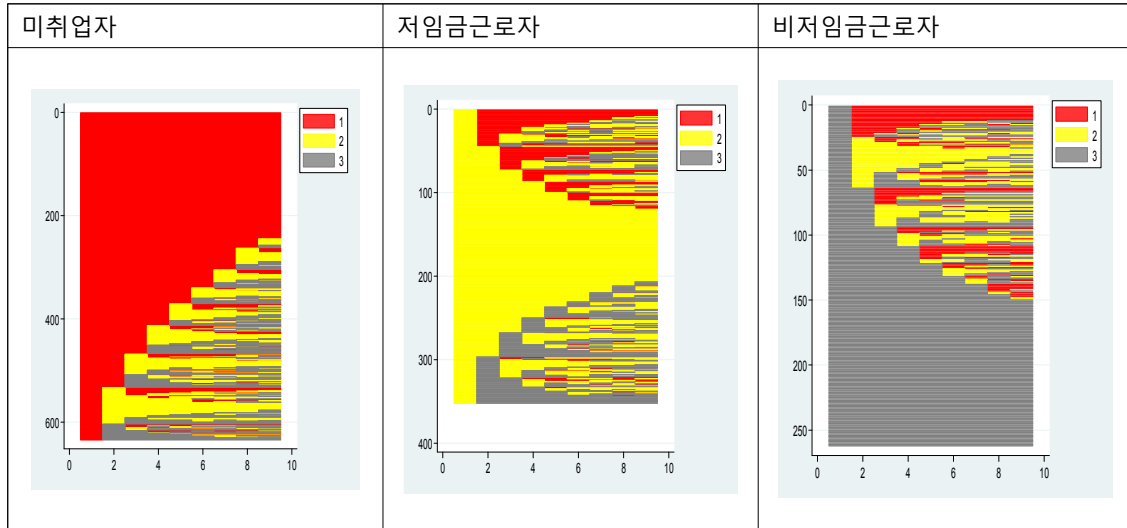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관측 시작시점인 7차년도(2004년) 당시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여, 이후 고용형태의 변화를 관찰해보았다([그림 2] 참조). 먼저, 관측 시작시점에 미취업 상태인 기혼 여성의 절반가량은 최종 관측 시점인 15차년도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나머지 절반가량의 기혼 여성은 비슷한 비중으로 저임금근로와 비저임금근로로 진입하였다. 한편, 미취업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기혼 여성들은 대체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측 시작시점인 7차년도에 저임금근로자였던 기혼 여성의 상당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저임금근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근로 여성의 1/3가량은 9년의 관측기간동안 내내 저임금근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업이나 비저임금근로로 옮겨갔던 경우라 할지라도 다시 비저임금근로 상태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저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수의 경우 비저임금근로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저임금근로로의 이동보다는 미취업으로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비저임금근로에서 미취업으로

이동한 기혼 여성의 경우 미취업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에 반해 비저임금근로에서 저임금근로로 이동한 여성의 경우에는 비저임금근로와 저임금근로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경향이 있음이 포착되었다. 이는 저임금근로가 상대적인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특성으로 인해, 저임금근로 기준선의 경계선에 위치한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추측된다.

[그림 2] 고용형태별 사건 계열 그래프(관측 시작시점 기준)



주1 : 범례는 1.미취업(빨간색), 2.저임금근로(노란색), 3.비저임금근로(회색)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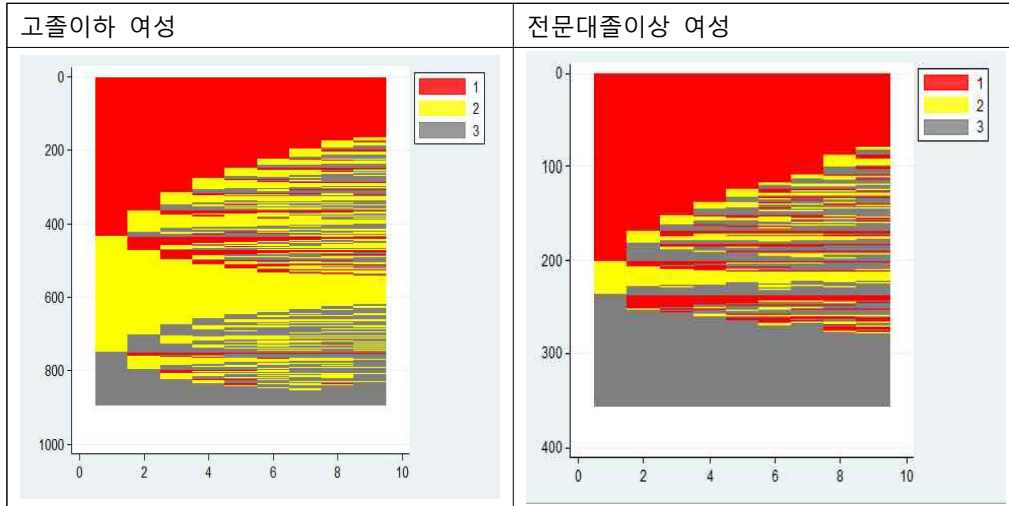
주2 : X축은 7차년도(2004년)를 시작으로 15차년도(2012년)까지의 응답차수, Y축은 빈도로 기혼여성 각각을 의미함. 즉, 가로 줄 하나가 한 개인의 고용형태 변화를 나타냄.

주3 : 각 차수별 관측치는 총 1,248명임.

학력별 고용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졸이하 학력을 지닌 여성에 비해 전문대졸이상 학력자 인 여성의 경우 저임금근로 비중이 확실히 낮았다. 특기할만한 점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 여성의 경우 미취업상태가 지속되거나 비임금근로 상태가 지속되는 양분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반면, 고졸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저임금근로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미취업 → 저임금근로 혹은 저임금근로 → 비저임금근로, 저임금근로 → 미취업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이동이 눈에 띈다.

이는 고학력 여성일수록 배우자의 학력도 높아 가구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관심이 높고, 노동시장참여시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경향이 강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유보임금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고학력 여성일수록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데 반해,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이 보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노동시장 참여 자체를 망설이게 된다. 한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 경우 퇴직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져 경력단절을 방지하게 된다. 이는 상당수의 고학력 기혼 여성이 비저임금근로 상태를 지속하는 경향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학력별 고용형태 변화 사건 계열 그래프(관측 시작시점 기준)



주1 : 범례는 1.미취업(빨간색), 2.저임금근로(노란색), 3.비저임금근로(회색)을 의미함.

주2 : X축은 7차년도(2004년)를 시작으로 15차년도(2012년)까지의 응답차수, Y축은 빈도로 기혼여성 각각을 의미함. 즉, 가로 줄 하나가 한 개인의 고용형태 변화를 나타냄.

주3 : 각 차수별 관측치는 총 1,248명임.

### 3. 상태의존성 분석 결과

이 절에서는 동태적 패널 다항 로짓(Dynamic panel multinomial logit) 분석의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고용형태별 상태의존성을 중심으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임의 효과(random effect)의 분산과 공분산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동태적 패널 다항 로짓 분석이 미관측 특성을 통제한 보다 적합한 추정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전기( $t-1$ 기)의 취업자는 현재 취업자일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특히 전기의 고용형태가 전기와 동일한 현재의 고용형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태의존성이 발견되었다. 즉, 전반적으로 취업→미취업으로의 이동보다는 취업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에 저임금근로 상태에 있던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현재 저임금근로를 하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긴 했으나, 비저임금근로로의 이동 또한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저임금근로 상태가 유지된 경우의 계수 값이 저임금근로에서 비저임금근로로 이동한 경우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저임금근로의 함정효과가 존재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저임금근로에서 미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에 비해서는 비저임금근로로 이행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임금근로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이탈 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반면, 비저임금근로는 저임금근로에 비해 보다 큰 취업 유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

기에 비저임금근로자였던 경우 현재 저임금근로를 하고 있을 확률에 비해 비저임금근로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있는 기혼 여성들은 해당 일 자리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양질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새삼 상기시킨다.

<표 4> 상태의존성 분석결과 : 동태적 패널 다항 로짓

		저임금근로		비저임금근로	
		Coef.	Std.Err	Coef.	Std.Err
상수		-13.512	7.671*	-25.742	8.793***
초기 값	저임금근로	1.856	0.164***	1.533	0.201***
	비저임금근로	1.027	0.180***	2.858	0.222***
전기 (t-1)값	저임금근로	2.556	0.105***	2.419	0.130***
	비저임금근로	2.058	0.130***	3.272	0.137***
인적 특성	연령	0.366	0.092***	0.376	0.104***
	연령의제곱	-0.004	0.001***	-0.005	0.001***
	전문대졸	-0.218	0.160	0.787	0.187***
	4년제대졸	-0.793	0.191***	1.362	0.200***
가구 특성	가구주여부	0.533	0.198***	0.407	0.224*
	가구소득	-0.003	0.000***	-0.005	0.000***
보육 변수	영아여부	-0.825	0.169***	-0.466	0.176***
	유아여부	-0.364	0.178**	-0.412	0.195**
	보육조력자	0.339	0.187*	0.418	0.220*
	보육시설 이용여부	0.425	0.183**	0.527	0.199***
평균 값	가구주여부	104.451	93.764	236.596	107.848**
	가구소득	-0.012	0.014	-0.017	0.016
	영아여부	6.202	4.721	15.076	5.483***
	유아여부	6.815	5.065	4.282	5.820
	보육조력자	-43.016	49.238	-53.790	56.907
	보육시설이용	-0.175	6.284	12.499	7.210*
var(1)		1.830		0.251***	
var(2)		3.001		0.391***	
cov(2,1)		1.219		0.240***	
Log-Likelihood		-6,483.101			

주 1 : 가구소득은 기혼 여성 본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월평균 총가구소득임.

한편, 학력은 높을수록 미취업 대비 비저임금근로에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인 반면, 저임금근로의 경우에는 유의한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할만하다. 구체적으로는 고졸미만 학력자에 비해 전문대졸이상 학력자와 4년제대졸이상 학력소지자는 미취업 대비 비저임금근로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4년제대졸 학력소지자의 경우에는 미취업대비 저임금근로 확률이 유의미한 음수로, 4년제대졸이상 학력소지자의 경우 저임금근로를 하기보다는 미취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았다. 전문대졸이상 학력자의 경우에도 미취업대비 저임금근로 확률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음수인 것으로 분석되어, 고학력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이 필요함을 짐작케했다.

가구소득은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높을수록 취업 확률보다 미취업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인 기혼 여성은 가구주가 아닌 여성에 비해 취업 확률이 높아, 기혼 여성의 취업에

소득효과가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는 배우자 등 가구내 주소득원이 따로 존재할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보육관련변수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친인척 보육조력자가 있는 경우 모든 경우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였으며, 보육시설 이용자의 취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주요 제약요인으로 꼽히는 영유아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제약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미취업 대비 저임금근로로 확률의 계수값이 비저임금근로인 경우의 계수값에 비해 크게 나타나, 영유아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일자리의 질이 근로지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근로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이 자녀의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저임금근로자의 상당수가 노동시장에 이탈됨을 엿볼 수 있었다.

## V.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기혼 여성의 저임금근로의 상태의존성 및 노동시장참여행태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번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자 하는 기혼 여성 혹은 보육으로 인한 부담을 안고 있는 기혼 여성은 노동시장참여 자체가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참여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2차노동시장에 직면하게 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2차노동시장에 강한 함정효과가 존재할 경우, 특히 유보임금이 높은 고학력 기혼 여성들은 노동시장참여를 더욱 꺼리게 되어 여성 고용률은 크게 위축되게 된다.

분석 결과, 관측 시작시점인 7차년도에 저임금근로자였던 기혼 여성의 상당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저임금근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근로 여성의 1/3가량은 9년의 관측기간 동안 내내 저임금근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업이나 비저임금근로로 옮겨갔던 경우라 할지라도 다시 비저임금근로 상태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저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수의 경우 비저임금근로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저임금근로의 이동보다는 미취업으로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비저임금근로에서 미취업으로 이동한 기혼 여성의 경우 미취업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학력을 지닌 여성에 비해 전문대졸이상 학력자인 여성의 경우 저임금근로 비중이 확실히 낮았다. 특기할만한 점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 여성의 경우 미취업상태가 지속되거나 비임금근로 상태가 지속되는 양분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반면, 고졸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저임금근로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미취업 → 저임금근로 혹은 저임금근로 → 비저임금근로, 저임금근로 → 미취업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이동이 눈에 띈다.

한편, 개인의 미관측 이질성을 감안한 동태적 패널 다항 로짓 모형의 분석 결과, 전기의 고용형태가 전기와 동일한 현재의 고용형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태의존성이 발견되었다. 다만, 전기에 저임금근로 상태에 있던 기혼 여성이 현재 비저임금근로로 이동했을 확률 또한 유의미한 양

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임금근로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이탈 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한편, 비저임금근로는 저임금근로에 비해 보다 큰 취업 유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력은 높을수록 미취업 대비 비저임금근로에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인 반면, 저임금근로의 경우에는 유의한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졸미만 학력자에 비해 고학력 기혼 여성은 미취업 대비 비저임금근로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년제대졸 학력소지자의 경우에는 미취업대비 저임금근로 확률이 유의미한 음수로, 4년제대졸이상 학력소지자의 경우 저임금근로를 하기보다는 미취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 외 가구 특성 변수와 보육관련 변수는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하였는데, 특기할만한 점은 영유아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일자리의 질(임금수준)이 근로지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몇가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고학력 여성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들이라면 1970년대생 이후 출생자로, 이들은 여성 대졸자가 급증하는 1990년대에 대학을 경험한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자녀 양육이 끝나는 시점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를 강하게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미취업상태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 일자리 정책 수립시 고학력 여성의 특성을 감안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한편, 일가정 양립 정책의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경력단절 방지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유아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정책 등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반정호(2010), 「한국은퇴세대의 근로생애와 경제적 복지수준의 관계」,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석상훈(2008), 「저임금근로의 동태적 분석 : 상태의존성 검증」, 『산업경제연구』 21권 2호, pp.691-709.
- 윤진호·이시균(2009), 「한국의 저임금 고용의 결정요인과 이동성」, 『경제발전연구』 15권 1호, pp.185-213.
- 장지연(2004), 「여성노동시장과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 자료집』, pp.1-33.
- 최효미(2014),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와 상태의존성」, 『노동정책연구』 14권 1호, pp.1-33.
- Ahn, T.(2010), "Employment Dynamics of Married Women and the Role of Part-Time Work :

- Evidence from Korea",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Vol. 53, No. 1, pp.25-38.
- Cappellari, L. and Jenkins, S.(2004), "Do then 'working poor' stay poor? An analysis of low pay transitions in Ital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4, pp.87-110.
- Drobinč, S., Blossfeld, H. and Rohwer, G.(1999), "Dynamics of Women's Employment Patterns over the Family Life Course :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1, No.1, pp.133-146.
- Macindoe, H. and Abbott, A.(2004), "Sequeunce Analysis and Optimal Matching Techique for Social Science Data", *Handbook of Data Analysis*, Sage Publication.
- Mosthaf, A., Schank, T. and Schnabel, C.(2009), "Low-Wage Employment versus Unemployment : Which One Provides Better Prospects for Woman?", *IZA Discussion Paper*, No. 4611, pp.1-26.
- Okamura, K. and Islam, N.(2009), "State Dependence in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n Japan", *IRISS Working Pper Series*, Vol. 2009-17. pp.1-18.
- Uhlendorff, A.(2006), "From No Pay to Low Pay and Back Again? A Multi-State Model of Low Pay Dynamics", *IZA Discussion Paper Series*, No. 2482.
- Yu, W.(2002), "Jobs for Mothers : Married Women's Labor Force Reentry and Part-Time, Temporaty Employment in Japan", *Sociological Forum*, Vol. 17, No. 3, pp.493-523.